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3.5% 하락, 안정적 물가 관리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전체 물가는 전년대비 3.1%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은 3.5% 하락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8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전체 3.1%↑, 농축산물 3.5%↓(농산물 6.7%↓, 축산물 1.5%↑)

농산물은 최근 강우 및 폭염에도 대체로 작황이 양호하여 대다수 품목의 가격은 낮은 수준을 보여 전년동월비 6.7% 하락하였다. 다만, 쌀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 : (26.1)0.9 → (2)-1.4 → (3)-5.6 → (4)-5.2 → (5)-0.8 → (6)1.1 → (7)-2.2 → (8)-6.7

쌀은 '25년산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1월부터 지속 하락하다 지난 7월 2일부터 20kg당 6만 1천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배추, 토마토 등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부는 가격 회복을 위해 농자재 할인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출하조절, 전용 판매대 운영,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영향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으로 최근까지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대규모 할인행사와 생산량 회복 등으로 상승세가 완화되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 (26.1)4.1 → (2)6.0 → (3)6.2 → (4)5.5 → (5)5.8 → (6)6.2 → (7)4.4 → (8)1.5

쇠고기는 한육우 사육마릿수, 도축가능 물량 감소와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할인지원을 통해 한우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계란은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8월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며 산지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농식품부는 산지가격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을 지속 공급하고, 납품단가 인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1.5%,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이후 원재료, 포장재, 유통비,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일부 가공식품 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하였으나, 원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승폭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수준과 품목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한편, 할인·판촉 행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가격 불안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
		담당자	사무관	유태선	(044-201-2685)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4-201-2371)
		담당자	서기관	홍성현	(044-201-2318)